

31인의 수병 말없는 귀환 신고 <15일 21시 현재>



안경환 중사

문규석 상사

정종울 중사



이상준 하사 방일민 하사 서대호 하사 임재업 하사 김종현 중사 안동엽 상병 조진영 하사 최정환 중사 조지훈 일병 심영빈 하사 손수민 하사 이상희 병장 강준 중사 이상민병장(88년생)



민평기 중사 김선호 상병 서승원 하사 이상상 병장 김선명 상병 신진준 중사 차균석 하사 강현구 병장 박정훈 상병 박석원 중사 문영욱 하사 이상민병장(89년생) 이재민 병장 정철희 이병

천안함 함미 20일만에 인양

시신 평택 2함대 이송...원인조사 착수

천안함의 함미가 침몰 20일 만에 뒤늦게 귀환했으나 실종 장병들은 끝내 살아서 귀대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3·5·6면)
국방부는 15일 "오전 9시부터 함미 인양작업을 시작해 정오께 바지선에 탑재 완료했다"면서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수사팀과 실종자 가족들이 기관부침실과 사병식당 등에 진입

해 수색작업 끝에 오후 9시 현재 시신 31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영현함에 안치해 태극기를 덮은 뒤 헬기를 이용해 평택 2함대사령부로 옮겨 안치됐다. 함미에는 당초 실종장병 44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신이 추가로 수습될 전망이다.
앞서 군과 민간 인양팀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백령도 남방 1천370m 지점 해역에 가라앉아 있는 함미를 대형 크레인선과 연결된 세 가닥의 체인을 이용해 끌어올려 바지선에 탑재했다. 물 위로 완전히 드러난 함미의 절단면은 좌·우현 모두 파손됐으나 우측 절단면은 심하게 타원형으로 파여 침몰 당시 강한 충격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군은 오후 2시50분부터 3시5분까지 해난구조대(SSU) 40여명을 투입해

함내에 작업등을 설치하고 통로를 개척했으며, 오후 3시5분에는 함조단 과학수사팀 4명을 승조원 식당으로 들여보냈다. 오후 3시20분에는 실종자가족 4명과 과학수사팀 4명이 함내에 진입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해군은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면 함미 부분을 바지선에 탑재하고 고속정 2척과 조계함 1척의 호송 아래 2함대 사령부로 옮길 예정이다. 바지선의 속도가 시속 5~7노트(9~12km) 정도로 느리기 때문에 150마일(240km) 거리의 평택항까지는 26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은 이날 인양 과정에서 함미를 지탱하던 바지선의 거치대가 파손돼 이를 고치는 작업을 벌이고 있어 함미 이송 시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인양을 맡은 민간업체 관계자는 "이날 오후 10시 이후에나 거처대 용

접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함미 이동도 오후 10시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부터 수중 잔해물 탐색을 위해 폭발 원점 반경 500m 이내를 정밀 탐색 중이며 무인탐사정인 '해미레호'를 투입했다. 민·군 합조단도 이날 함미가 탑재될 바지선에 현장조사팀 38명을 투입,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조사팀은 군 인사 26명과 민간인 10명, 미국 조사요원 2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은 윤석용 공동조사단장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요원 2명, 함정구조 전문가 4명, 폭발유형 분석 전문가 3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절단면을 중심으로 선체 전반에 대한 정밀영상을 촬영하는 등 선체 절단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연합뉴스

주민 의견 무시한 협상 결국 시한 넘겨

호남 야권연대 실패로 끝날 듯

이른바 '4+4 야권 연대' 협상 시한인 15일, 호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몇 자리를 민노당 등에 양보한다는 민주당의 방안이 최고위원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추진되던 야권 연대 협상은 실패로 결말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중진 연설회의를 갖고 김민석 최고위원 등 야권협상대표단이 마련한 광주·전남지역 공천 양보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협상대표단은 광주에서 서구와 북구 중 한 곳, 전남에서 순천 등 모두 두 곳을 무공천하는 양보안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제시했다.

이에 박주선 최고위원은 "선거 연대라는 것은 서로 원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의 협상은 원원이 전혀 아니다"며 "이 같은 협상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천 의원은 "공천을 포기하는 양보안을 통해 선거 연대를 할 것이 아니라 후보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뜻에 일치하는 야권 연대"라며 협상대표단의 안에 반대여사를 표시했다.
조영택 의원도 "이 같은 협상 방법은 다수 유권자의 정서와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이 같은 협상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이는 유권자의 정서를 팔아 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협상 대표단이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을 했다"며 "이같은

이 원칙이 무시된 협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주를 이뤘으며 더욱이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한 4명의 최고위원만 참석, 물리적으로도 협상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협상대표단이 마련한 호남 양보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 관계자는 "야권 연대협상 파트너들이 국회 근처에 머무르며 민주당이 가져올 협상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협상안을 추진하지 않아 전체적인 협상 타결이 어려워졌다"며 "하지만, 민주당 협상단은 협상시한을 연장하고 지역별 연대를 모색하는 등 어떤 형식으로라도 야권 연대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 ~ 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튼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과 교육의 요망!
광신대학교
법학문의 학부 ☎62-605-1114
대학원 ☎62-605-1115

5호남예술제

미술·작문대회

신청기간: 2010.5.6(목) ~ 5.13(목)
발표대회: 2010.5.24(월)
종료대회: 2010.5.27(목, 28(금))

주최: 광주광역시 - 광양시

주관: 광주광역시청, 광양시청

후원: 삼성전자, SK, LG, POSCO, 현대자동차, 한화생명, 신한은행, 광주은행, 광주교통공사, 광주에너지개발공사, 광주환경개발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광주주택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문의: 062-270-2111